

# 뉴 잉글랜드 한인 미국 시민 협회

1992년도 회지

제 2 호



뉴 잉글랜드 한인 미국 시민 협회

NEW ENGLAND KOREAN AMERICAN CITIZENS LEAGUE

Page 1. 발간사 ..... 회장 김 영집

2. 격려사 ..... 미연방 상원 의원 (MA주) John Kerry

3. 격려사 ..... 대한민국 주 보스톤 총영사 안 증구

4. 시민 협회 활동 보고 ..... 이사장 김 문소

6. 내일을 향하여 ..... 위원장 이 병철

8. ASIAN WOMEN'S PROJECT ..... 이사 노 명화

10. THE DEVELOPMENT COMMITTEE ..... 위원장 원 덕수

11. 노인 아파트 건립 ..... 노인 아파트 건립 위원회 회장 김 풍진

12. They Armed in Self-Defense ..... Elaine H. Kim

13. 기록 - 공문 전재 ..... (1992년 6월 15일자)

14. 기록 - 공문 전재 ..... (1992년 10월 5일자)

15. 자료 - 선거 일정 안내 ..... Massachusetts 주 Elections Division 제공

16. 자료 - 유권자 등록 안내 ..... Massachusetts 주 Elections Division 제공

17. 자료 - 등록 및 투표 안내 ..... Massachusetts 주 Elections Division 제공

18. 협회 임원 명단 및 주소록 ..... (1992년 10월 1일 현재)

21. 수입 및 지출 보고서 ..... 재무 권 용태

The Insignia was designed by Douglas D. Wohn & CADD by Kija Kim

<b>Journal</b> , the 2nd Publication (1992)	시민 협회 회지, 제 2 호 (1992년)
<b>Published By</b> , New England Korean American Citizens League 48 Washington Drive, Acton, MA 01720 Tel. : (508) 263-1689 October 24, 1992	발행처 / 뉴 잉글랜드 한인 미국 시민 협회 발행일 / 1992년 10월 24일 발행인 / 김 영집 편집인 / 김 문소 편집 위원장 / 김 명기
<b>Publisher</b> Young J. Kim	비매품
<b>Editor</b> Moon So Kim	
<b>Editorial Board</b> Michael M. Kim (Chief)	

지난 해 10월에 있었던 제 1회 총회 이후의 협회 활동을 회고 하면서, 새 사업을 구상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봉사에 힘입어 이사들과 역원들이 서로 도우면서 협회의 사업을 힘이 닿는대로 추진했습니다. 이제 많은 한인들이 이 지역에는 시민협회가 한인 사회와 지방 정부 및 중앙 정부 간의 거리를 좁혀가고 있음을 알게 되었으니 함께 기뻐하며 축하할 일입니다.

금년은 재미 한인들에게는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로스엔젤레스에 있는 한인 상가가 그 지역 소수 민족이 지니고 있는 참을 수 없는 쌓인 불만을 분출하는 데 희생의 제물로 바쳐진 해입니다.

자유 경쟁 사회에서는 경제적 혜택의 불균형은 피할 수 없는 현상이며, 따라서 불만을 품게 되는 소수 집단은 언제나 있고, 경찰의 당연하고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소수가 희생의 제물이 된 예는 역사에 허다합니다. 그래서 동양에는 적자 생존이라는 말이 있고 영어권에는 Survival of the fittest 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우리가 아는대로 여러 종족이 있으며, 사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질수록 자기 종족의 이익을 구하게 됩니다. 우리는 시민으로서 국가 전체의 이익을 우선 순위의 상위에 두어야 하지만 우리 한인계가 차지해야 할 당연한 혜택을 누리며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 수와 재력에 어울리는 정치 세력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재미 한인 사회는 그러한 정치 세력을 지니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한 개인의 힘은 매우 미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협조하고 단합하여 우리중에 타고난 정치 지도자들 발굴하여 키우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치 활동에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 모두가 참여하면 5년 내지 10년 이내에 우리는 지방과 중앙에서 영향력이 있는 소수 민족이 될 것을 확신 합니다. 이것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의 생존권의 문제이므로 누구나 명심해야 할 일입니다. 미국의 오고 또 오는 역사속에서 로스엔젤레스 사태는 단 한번으로 우리에게 죽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시민 협회는 여러분과 우리의 기관입니다. 여러분께서 협회의 성장 발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물질 양면으로 협조해 주십시오. 역원들과 이사들이 그간 쌓은 경험을 토대로 협회의 사업을 위해서 더욱 힘쓸 것을 다짐합니다.

격려사

미 연방 상원 의원 (MA주) John Kerry

JOHN KERRY  
MASSACHUSETTS

## United States Senate

WASHINGTON, DC 20510-2102

One Bowdoin Square  
Tenth Floor  
Boston, MA 02114-2919  
September 21, 1992

New England Korean American Citizens League  
48 Washington Drive  
Acton, MA 01720

TO THE ORGANIZERS AND PARTICIPANTS OF THE SECOND GENERAL ASSEMBLY MEET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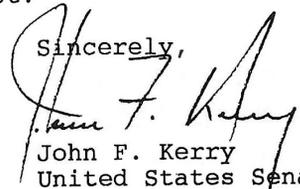
On behalf of all the citizens of the Commonwealth of Massachusetts, I would like to congratulate you on your successful second general assembly meeting. You are to be commended for your involvement in the political process, particularly voter registration.

As a United States Senator, I am deeply aware that each vote represents an opinion on an important issue. I have always been guided not only by my own beliefs, but by those of my constituents. Each election, whether local or national, offers me the opportunity to learn your views, which I consider daily as part of my work in Congress. It is thus vital that each citizen in our Commonwealth exercise his or her right to vote.

Throughout my years in public life, I have witnessed the immense contributions of ethnic minorities to our great state. The Korean community, in particular, has a proud record of economic and cultural success. Our nation was founded by immigrants whose dreams of independence led them to this great land. It is this same independence and concern for enhancing the rights of the individual that I applaud you for tod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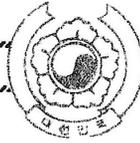
Thank you for your contribution to the Commonwealth of Massachusetts and best wishes for a second general assembly meeting as successful as the first.

Sincerely,



John F. Kerry  
United States Senator

격려사  
(시민협회 회지 제 2 호 발간에 즈음하여)



대한민국 주 보스톤 총영사 안 종구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ONE FINANCIAL CENTRE, BOSTON, MA 02111  
TEL. (617) 348-3660 • FAX. (617) 348-3670

결실의 계절을 맞아 많은 성과와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이곳 보스톤에 부임한지도 이제 8개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간 교민 여러분들의 성원과 협조에 힘입어 맡은 일에 전념할 수 있었던 점을 감사드립니다.



본국을 대표하여 이곳에서 교민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저의 직분은 교민 여러분들이 미국 주류 사회에 동참하여 각자 선택한 분야에서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가실 수 있도록 측면에서 지원하는 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희 주 보스톤 총영사관 관할지역인 뉴 잉글랜드지역에는 각 주의 한인회와 아울러 많은 교민 단체들이 구성되어 있어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교민 사회 전체가 단합되어 있음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편 한국 동포 전체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는 교민 사회가 단순한 친목 단체에 머무르지 않고 미국 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 기반을 닦아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뉴 잉글랜드 미국 시민 협회가 갖는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뉴 잉글랜드 미국 시민 협회가 우리 동포들의 정치 참여를 제고하고 정치에 대한 관심을 북돋아 미국 내 한인 사회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동포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큰 역할을 담당해 나갈 것으로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두번째 회지 발간을 축하드리며 뉴 잉글랜드 미국 시민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992년은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대통령 선거를 치루는 중요한 해입니다. 특히 지난 몇 년간의 경제 불황으로 인한 높은 실업률로, 풍요로운 나라로 알려진 미국도 보호주의 국가로 변해가는 가운데 인종간의 갈등 문제까지 겹쳐, 그 여파가 한인 사회에도 영향을 미쳐 유감스럽게도 L.A. 사태를 유발케 함으로써 지금까지 경제적으로 안정만을 추구하기에 여념이 없던 한인들의 생활 태도에 어떤 경종을 울려 준 해이기도 한 줄 압니다.

이제부터는 한인들도 경제적 안정의 확보를 위해서 정치 및 지역 사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의식이 싹트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여러 명의 한인들이 지방정부, 시, 주의 회 및 연방 의회에 적극 출마를 시작한 해이기도 합니다.

우리 뉴잉글랜드 시민 협회도 지난 일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김 영집 회장을 비롯한 여러 역원들의 수고와 열의로써 여러 가지 일들을 수행해 온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 간의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제 1차 총회 개최

1991년 10월 19일, 성 요한 교회에서 제 1차 총회를 개최하였으며, 연사로 김 풍진 여사의 노인 회관 건립을 위한 실제적 절차와 문제점에 대한 강연회를 가졌습니다.

#### 2. 시민 협회지 창간호 발간

제 1차 총회를 기해 그 간의 시민 협회 활동을 종합 보고하는 형식의 협회지(40면 - 500부) 김 명기 출판 위원장의 수고로 처음 발간해서 각 회원에게 배부했습니다.

#### 3. 고문, 이사, 임원 연석 회의



지난 1년간 3회 (3월 21일 장 용복 회장택, 6월 13일 최 홍균 이사택, 9월 12일 이 병철 이사택)에 걸쳐 연석 회의들 갖고 협회 운영을 논의 했습니다.

#### 4. 이사 보강

교회에서 추천한 이사 뿐만 아니라 지역을 대표하는 이사의 필요성이 자연히 생기게 되어, Lexington 지역 담당에 정 규영 이사, Concord·Acton 지역 담당에 최 홍균 이사, 또 여성으로서의 이사가 두 분으로서 김 기자 이사와 노 명화 이사, 그리고 1.5세를 포함하려고 James 정 이사가 수고 하신게 되었습니다.

#### 5. 분과 위원회 증설과 위원장 위촉

현재까지 이사회내에 5개 분과 위원회 중의 하나인 출판 및 홍보 위원회를 둘로 분리하며, 2개의 분과 위원회를 신설하여 총 8개의 분과 위원회를 구성케 되었습니다.

\* 출판 위원회 (Publication Committee) : 김 명기 위원장 - 협회지 발간

\* 홍보 위원회 (Communication Committee) : 최 홍균 위원장 - 대내외 서신 연락

\* 개발위원회 (Development Committee) : 원 덕수  
위원장 - 타 민족 시민 협회와 협조 활동  
\* 한미 문화 연구 위원회 (Korean American Heritage  
Research Committee) : 이 병철 위원장 - 한인들의 뿌  
리 찾기, 한옥 관계 개선 등 시민 협회 장기 대책 연  
구

#### 6. 최 승훈 후보 후원

우스터 11선거구에서 공화당 후보로 출마한 최  
승훈 후보를 위해 9월 15일 예선을 앞두고 이곳 전  
한인 단체장으로 구성된 후원회가 결성된 바 있으  
며 시민 협회로서는,

- 1) 6월 15일자로 모든 시민 협회 회원들에게 후원  
호소 편지를 보낸 바 있으며,
- 2) 6월 22일 있었던 최 승훈 후보 공식 출마 선언 대  
회에 김 영집 회장과 김 문소 이사장등이 참가 했으  
며,
- 3) 적으나마 후원금도 전달한 바 있습니다.

#### 7. 유권자 등록 권장 (Voters Registration)

김 은한 위원장 (유권자 등록 및 투표 위원회)  
및 Mrs. 최 홍균, Mrs. 이 희규, Mrs. 김 은한 등이 성  
요한 교회와 북부 보스톤 교회에서 유권자 등록을  
3 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 8. Asian Festival 참가 주선

지난 8월 29일에 보스톤 시내 Hatch Shell 에서 Asia  
n - American Commission이 주최한 Asian Festival 행  
사에 한인을 대표하여 변 광석 씨가 성악 독창을,  
김 명칠 사범이 태권도 시범을 한바, 한인회가 사  
정이 여의치 못하여 시민 협회가 주선하여 참여토  
록 하였습니다.

#### 9. 청원서 발송

김 양길 위원장 (기금 모금 위원회)의 개인 사  
업체가 근처 도로 공사 관계로 사업에 지장이 있기

에 도로 계획 변경 요청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시민  
협회장 명의로 Weld 주지사에게 보낸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1 년간의 활동 사항을 말씀드리  
고, 1990년 8월 18일에 창립 총회를 개최한 이래 만  
2년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볼 때 우리 시민 협회의  
할 일이 점점 분명해져 감을 느낍니다.

첫째, 한인 미국 시민은 모두가 유권자 등록을 하루  
속히 해야겠습니다. 한번만 거주지에 등록하면 됩  
니다.

둘째, 선거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선거 자금도 낼  
수 있는 것 내고, 선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에  
적극 협조하는 한인상을 보여 줘야겠습니다.

셋째, 투표일에는 꼭 투표를 함으로써 우리들의 주  
장과 행동이 함께 표현되어야겠습니다.

끝으로 모든 한인 미국 시민은 한분도 빠짐없  
이 뉴잉글랜드 한인 시민 협회에 가입하여 우리의  
몽친 힘으로 미국 사회속에서 한인의 권익을 찾는  
데 힘쓰는 또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한민족의 근대 이민 역사가 20여년이 되면서, 우리는 여러가지 각도에서 다른 민족의 이민 역사에서 그 유례를 찾기 힘든 정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함으로써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에 널리 알려진 이민 성공 모델이 되었다.

우리의 외형적 이질감, 문화적 소외감, 언어의 난이성 등 유럽에서 이민 온 민족보다 몇 배나 되는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힘차게 과감하게 이 땅에 한 민족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 물론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는 타 민족과는 다른 여건 속에서 근대 이민을 시작한 것도 사실이다. 우리는 전문직의 고급 인력만이 비연고 이민이 가능했고, 미국 사회가 경제적으로 고성장하는 시기에 왔으며, 사회적으로는 민권 운동에 의하여 개방 사회로 가고 있었던 때에 이루어진 이민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성공의 요소는 우리 민족의 성공적인 삶을 향한 근면의 자세와 집념이 아닌가 한다.

이렇게 평탄한 상황속에서 우리는 Los Angeles 흑인 폭동을 맞게 된 것이다. 그동안 한쪽 문제로 얼마간의 잡음이 있었지만, 이 폭동은 우리 모두에게 상당히 충격적이었다. 그 경악스러운 약탈과 방화, 대대적인 언론 보도의 규모, 미국 사회의 여론적 소용돌이 속에 우리는 말려 들었기 때문이다.

직접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물론이었거니와 흑인 지역과는 직접적인 관련을 갖지 않고 살던 사람들도 인종 문제가 불건너 불이 아닌 것을 절감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문제의 원인을 해석하려 했고, 나름대로 근본적인 문제의 답을 정의하고 그 해결책을 마치 방정식이 나 풀듯이 제시하기도 했다.

어떤 이는 한국전을 통하여 잘못 맺어진 한쪽 간의 인연, 어떤 이는 미국 사회가 한인에 대한 차별 대우로 유도된 속죄양으로서의 희생, 그동안 누적되어 온 한흑간의 인종 문제 등 수없이 많은 진단

이 제기되고 토론되어 왔다.

그 모두가 어느 정도는 호소력이 있는 논리였지만, 그 폭동의 원인을 한민족의 미국 사회로의 적응의 실패로 연결 시키는 감을 주는 것은 지나친 피해자 의식의 발로가 아닌가 생각된다. 왜냐하면 폭동의 원인은 우리와는 무관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한민족이 공격의 대상이 된 것은 우리의 실패라기 보다는 성공의 결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느 사회에서도 실패자의 무리 속에서 성공자로 부각될 때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고, 더우기 외부에서 침투한 성공자들이 무리를 형성할 때 기존 무리와의 마찰은 거의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이해하는 데 많은 상상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혼돈 속에서 고통과 분노,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치룬 홍역이었지만 이번 폭동은 그 화염의 빛으로 한민족의 여러가지 실태를 비추었고, 우리가 처음으로 한민족이 이 사회에서 주의를 끌 수 있는 크기의 종족으로서 인정을 받게 된 것을 자각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 수에 비하여, 아니 각자 개인적인 성공에 비하여 하나의 종족으로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너무나 자리를 잡지 못한 민족으로서도 인정을 받게 된 것이다. 그것은 미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프랑스 신문까지 그 문제를 지적하게 됐으니 의심의 여지가 없다.

흑인에 비교도 안되는 적은 수의 한인이 T.V. 인터뷰에 초대되었고, 문제의 토론에 참가한 분들도 미처 정리되지 않은 한민족의 입장을 대변 아닌 대변을 함으로써 그를 지켜 본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도 이 사회에서의 우리의 좌표를 찾고 우리의 입장과 문제를 연구 정리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믿게 된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 하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민족이 나아가야 할 길을 찾고, 미국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중을 인도할 정치 및 문화 지도자를 길러야겠다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됐으니, 이것이 흑인 폭동에서 고통과 더불어 얻은 값비싼 교훈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현재까지 한민족의 정치적 사회적 참여가 미숙했던 것이 누구의 잘못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분명히 느껴지는 것은 다수의 사람들이 그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가능한 많은 이유 중에 몇가지를 뽑는다면, 한민족의 사회 참여에 대한 가치관, 사회 윤리, 부정적인 정치인상이 아닌가 생각된다.

철저한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아님) 적 가치관을 갖고 있는 미국 사람들에게는 개인 영달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의 신성한 민주 시민의 신앙적 차원의 의무까지 인식되는 사회 참여 의식을 우리는 아직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한민족의 문화적 유산을 재평가하고 정리하여 우리의 후손에게 넘겨줄 가치관과 윤리가 무엇인가를 가려봐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수많은 인종이 모여서 화합하고 존중하며,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자유와 번영을 공유하며 살 수 있는 아름다운 나라로 미국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한민족이 기여할 수 있는 적극적 가치관을

정립하고 과감히 참여 해야할 것이다. 또한 우리가 찾고 지켜야 할 권익을 찾아 지킴으로써 미국을 미국답게 발전시키는 영광스러운 사명을 다하는 자랑스러운 Korean-American 의 문화적 Identity를 정립하고 우리의 2세대들이 미국 사회의 주류에서 활동할 기회를 마련할 때가 분명히 온 것이다.

이 중대한 일을 위하여 이제 이 땅의 한민족의 장래를 염려하는 지성인들은 바쁜 시간을 쪼개어 깊은 사색에 잠겨야 하고, 모여서 토론하고, 찾아진 지혜를 널리 보급하고, 건전한 한인 커뮤니티의 정치 풍토를 조성해야 할 시대적 사명감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운동을 조성하고 후원하기 위하여 뉴잉글랜드 한인 미국 시민 협회는 "한미 문화 연구위원회 (Korean-American Heritage Research Committee)"를 만들게 된 것이다. 뜻을 같이하는 개인들과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 여부가 이 운동의 성패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가 참여하여, 지금까지 우리가 이룩한 성공만큼 문화적으로도 굳건한 한민족의 토대를 구축함으로써 미래를 향하여 빈손으로 태평양을 건너온 자랑스러운 선각자의 상을 우리 2세대에게 넘겨주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 시민 협회 가입 안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여기 있습니다.

시민 협회의 대열에 함께 해 힘을 합칩시다.

이 회지내에 있는 가입 원서를 지금 곧 써서,

1인당 년 회비 10불과 함께 지정된 주소로 보내 주십시오.

**당신의 가족을 위한 미래에의 투자입니다.**

Domestic Violence란 아직까지 우리 한인 사회에는 생소한 단어이나, 이곳의 TV나 신문 보도를 통해 알고 있겠지만 Victim의 숫자가 늘어감에 따라 문제의 심각성이 가히 크다고 말할 수 있다. 현재 미국 내에서는 매 15초에 한 명의 여성이 남편이나 남자 친구에 의해 Physically Abuse 당하고 있고 8일에 한 명꼴의 여성이 심한 구타에 의해 죽어가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Massachusetts에서도 지난 일년 동안에 54,000명의 여성이 Domestic Violence Hot Line에 도움을 청해 왔고 그 숫자는 현재까지 늘어나는 형편이다. 더 놀랄만한 사실은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Massachusetts에서도 20일에 한 명꼴의 여성이 가까운 남성에게 구타 당하고 죽어가고 있다는 정보다. (Beaten to Death)

하지만 이 끔찍한 사실이 이제는 미국 사회, 미국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민 생활 속에서도 싹 트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한 해 동안에 Domestic Violence로 죽은 여성의 13%가 아시안 계통의 여성이었는데 막상 아시안의 수는 미 전 인구의 2.4% 정도 밖에 미치지 못하는 형편이고 보면 이제는 강 건너 불구경만 할 시기만은 아닌 것 같다.

지난 10년 동안에 Massachusetts에는 아시안계 (Asian Pacific American) 대다수의 수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계통의 피난민들이지만 한인들의 숫자도 눈에 띄게 늘어났다. 지난 6개월 동안 이 지역에서도 4명의 아시안 여성이 남편의 구타로 죽어갔고 160명의 여성이 도움을 청해 왔다. 개인 가정의 문제점을 외부와 의논하기 꺼려하고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우리들의 생활 풍습으로 볼 때 보다 더 많은 숫자의 여성이 이 순간에도 남 모르게 고민하고 있으리라 짐작된다.

Domestic Violence란 Physical Abuse 뿐만이 아

니라 Mental & Verbal Abuse도 포함된다. 언어와 문화가 다른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Stress가 쌓인다. 알게 모르게 무시하는 말과 행동의 정도가 지나쳐 상대방의 존재를 완전 무시함과 동시에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을 밟아 버릴 때 생기는 문제점들이다. 또 Domestic Violence는 연령, 학력, 경제력에 관계 없이 어느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몹쓸 병이다. 하지만 막상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언어가 짧고 문화에 익숙치 못한, 특히 이민 초기의 여성들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점이다. 예를 한번 들어보자.

어느 새벽 1시에 Phoung이라는 베트남 여성이 두려움에 떨며 맨발로 근처 경찰서까지 뛰어갔다. 계속 문을 두드리며 호소해 보았지만 굳게 닫힌 문은 열릴 줄 몰랐다. 뒤따라온 Phoung의 남편은 울며 발버둥치는 Phoung을 끌어 차 안에 태운 뒤 사라졌다.

경찰서 문에는 "뒤편을 사용하십시오"라는 팻말이 걸려 있었지만 입을 줄 모르는 글이 무슨 소용인가. 끌려간 Phoung은 남편의 심한 구타는 물론 감금까지 당하는 죄인 아닌 죄인의 신세가 되어 버렸다. 6개월 후 남편의 손아귀에서 다시 탈출한 Phoung은 Hot Line의 도움으로 Shelter에 거주하게 되었지만 말도 통하지 않고 생활 방식마저 이해 못하는 미국인들 사이에서의 따돌림과 무시함은 더더욱 견디기 힘든 고문이었다. 의지할 곳 없는 Phoung은 할수없이 다시 남편 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우리들의 주위에 또 다른 Phoung은 없는가? 어려운 상황을 힘들게 벗어나 보았던들 무슨 소용이 있나? 갈 곳 없고 따뜻히 맞아주는 이 한 명 없는 타국에서 조금이나마 생각이 통하고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는 아시안 가정 상담소가 간절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약 2년전 관심있는 몇 명의 의지로 Asian Women's Project 가 설립됐다. 현재까지는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여성들이 가장 많이 도움을 청해 왔지만 적지않은 한인 여성들도 전화로 호소해 왔다는 보고가 있다. Asian Women's Project에서는 사랑의 전화 이외에 영어 Class, 법적이나 의료 진료에 관한 정보 제공, Support Group, Job Training 등 다양한 Program으로 구타 당하고 외면 당하는 아시안 여성들을 도와주고 있다. 짧은 시간 내에 꼭 필요한 기 관으로 자리잡혀 가고 있는 Asian Women's Project

는 여러분들의 끊임 없는 관심과 도움을 기다리고 있다. 만약 여러분의 주위에 도움이 필요하거나 관심이 있는 사람은 아래 번호로 언제라도 연락 주 시기 바란다.

Asian Women's Project  
 P.O. BOX 73  
 Boston, MA 02120  
 (617) 277 - 3648 (Crisis Line)  
 (617) 739 - 6696 (More Information)

## READY FOR A 'BUSHWHACKING'

Amidst the hoopla of the 1992 Democratic National Convention, Madison Square Garden, New York, July 13-16, Democratic leaders of Asian descendants gathered for a pep-rally of their own. The Asian Pacific American Advisory Council of the Democratic National Committee sponsored a Gala Cocktail Reception for the leaders of the Asian-American community on July 14, at the Starlight Roof of The Waldorf-Astoria, New York. More than a thousand guests attended the gathering to show support for the Democratic Presidential candidate Bill Clinton, as well as other current elected Asian-American Democratic government officials.

Congressman Robert T. Matsui, 3rd District of California, kicked-off the two-hour long program by declaring the need for a major change in America. He emphasized the significance of Asian Pacific Americans' role within the Democratic party and to the upcoming presidential campaign. "The leadership and values from our(Asian Pacific Americans) community are essential to addressing the



Two Korean-American women in public service.(left: Sophia Heesook Kang, Deputy Director, New York City Mayor's Office for Asian Affairs; right: Florence Myeong-Hwa Lowe, Deputy Director of Operations, Senate Ways And Means Committee, The Commonwealth of Massachusetts)

challenges of our country," said Matsui.

Although, many people attended the function expecting the appearance of Bill Clinton, it was Hillary Clinton who

addressed the Asian-Americans in support of her husband. "When I look around here and see the people gathered here, I don't see it in terms of Asian Pacific American caucus. I see in here Americans," Said Mrs. Clinton who claims to be the next first lady of the United States. She emphasized the need for a president who values and respects contribution of all Americans. Mentioning that she and her husband sees all issues in respect to the "Chelsea Test" (from the name of their twelve-year old daughter Chelsea), she stated that "what we want for America is what we want for our children."

Among the speakers who fired-up the crowd was United States Senator Daniel K. Inouye of Hawaii who addressed the seriousness of existence of racism in America. "We must call racism for what it is. This country is a country of immigrants, there is no room for racism here," said Inouye. "I'm doing everything I can to elect Bill Clinton as our next president. I say, we 'bushwhack' the man in the White House now."

The development Committee, the sixth of eight committees in the New England Korean American Citizens' League (NEKACL), came into birth this year. It has a 1992 budget of \$600 which will be utilized to explore the resources of the Asian American Community. Its objectives are to establish channels of communication to other communities and to involve ourselves, as discussed in the last NEKACL meeting, in socio-cultural activities as well as political ones. I hope this Committee will eventually be able to contribute to the strength of our country,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Having said the above, I'd like to share the activities this Committee has just started to get involved with in its first year.

The following will also serve as the 1992 report of the Committee. Basically there were four activities:

- 1) I attended the seventh Asian Unity Dinner with several members of the Korean American Society in New England. Its theme was Community In Action and the key speech was about the Los Angeles situation last April. I would suggest the NEKACL participate in the 1993 Asian Unity Dinner in order to be part of the estimated 1,000 people that will attend;
- 2) This Committee further promoted interaction amongst Asian Americans by participating in the first Asian American Festival held at the Hatch Shell on the Esplanade last August. Despite the stormy weather on the previous night, it turned out to be a perfect day for the outdoor performance of Korean folksongs and Taekwondo in front of the large audience. It will be an annual festival and the NEKACL should support the participation of the Korean performance groups;
- 3) I have met and talked to the members of the Asian American Resources Workshop (AARW). This group addresses Asian American issues, history, and experiences. I think it is important for the NEKACL to keep in touch with such organizations as the AARW and it is desirable to join some of them as an association member;
- 4) Finally, there have been several meetings between Korean Americans and African Americans. Each accommodated the other's opinions, comments, and interpretations on what happened in L.A. after the Rodney King case. I think that all who participated achieved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situation and planned a positive approach to have cross-ethnic programs through four subcommittees (media, business, socio-cultural, and academic).

All of these activities need more participants/volunteers as well as the support from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To contribute to our society as new Frontiers, the Committee will get involved and reach out in the coming years.

## 친애하는 교민 여러분

그동안 한인 교포사회의 눈부신 발전과 경제적 안정을 토대로 미국사회내에서 우리들의 정치적, 문화적, 정신적 성장을 위한 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중입니다.

금번 한인 노인아파트건립안의 기본적 정신은 우리 고유의 경노사상을 받들어 한국의 얼을 이국땅에 심고 재미교포들의 역사적 숙입을 성취시킴으로 2세에 대한 모범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노인들에게 깨끗하고 아담한 주택시설을 제공함으로 거주로부터 오는 독립심을 심어 드림으로 이를 기초로 제반적인 노인복지를 추구하고자 합니다. 즉 건강, 문화, 오락, 영양 및 기타 미정부에서 소수민족 노인들에게 베푸는 혜택을 강화 및 특별활동을 통해 증진시키려합니다.

이러한 취지와 목적으로 노인아파트건립 추진계획을 입안했으니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에 따른 창립모임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소수민족의 비영리단체 자격으로 정부의 지이자용자금을 신청할 것입니다. 민족적 긍지를 자부할 수 있는 이역사적 계획은 미국 동남부지역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규정상외의 기초자본금 및 본회의 창립단계시의 운영비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한 창조금, 기부금, 후원금 및 회비를 성의껏 보내주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금액의 다소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후원금 납부자는 창립위원으로서 본회의 연발보고서에 기록되고 노인아파트 건물에 부착되어 영구한 기록으로 보존될 것입니다. 또한 비영리단체 후원금납부자로서 미세금 보고에서 정식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낌없는 후원과 협조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1990년 10월 일

김 풍 진 올림

후 원: 서부플로리다한인회, 서부플로리다실업인협회, 탬파교회협의회, 교포신보  
주간동남부, 송학노인회, 서부플로리다골프협회, 세탁인협회, 구두수신인협회  
향우회, 목요회(이상무순)

# They Armed in Self-Defense

BY ELAINE H. KIM

**W**hen images of armed Korean shopkeepers and headlines about conflicts between African-Americans and Korean-Americans were suddenly beamed from Los Angeles two weeks ago, seemingly out of nowhere and without history or context, I knew it was another case of visual media racism. The disembodied images implied that both groups come from cultures more violent and racist than the dominant culture. They also diverted attention away from a long tradition of racial violence that was not created by African-Americans or Korean-Americans.

The tensions among people of color are rooted in racial violence woven into U.S. history for the past 500 years and evidenced today in a judicial system that can allow the men who beat Rodney King to escape conviction. The so-called black-Korean problem is a decontextualized manifestation of a much larger problem. The roots lie not in the Korean-immigrant-owned corner store situated in a community ravaged by poverty and police violence, but stretch far back to the corridors of corporate and government offices in Los Angeles, Sacramento and Washington, D.C. Without an understanding of our histories, Korean-Americans and African-Americans, it seems, are ready to engage in a zero-sum game over the crumbs of a broken society, a war in which the advancement of one group means deterioration for the other.

I have lived all my life in the United States. Even though people still compliment me occasionally on my ability to speak English and ask me when I am returning to "my country," I don't consider myself Korean. I am Korean-American. My consciousness was shaped by the civil-rights movement led by African-Americans, who taught me to reject the false choice between being treated as a perpetual foreigner and relinquishing my own identity for someone else's Anglo-American one. For me, African-Americans permanently redefined the meaning of "American." I came to understand how others had also been swept aside by the dominant culture: my schooling offered nothing about Chicanos or Latinos, and most of what I was taught about African-Americans was distorted to justify their oppression and vindicate the forces of that oppression.

Likewise, Korean-Americans have been and continue to be used for someone else's agenda and benefit, whether we are hated as foreigners who refuse to become "good Americans," stereotyped as diligent work machines or simply treated as if we do not exist. Throughout my childhood, the people who continually asked, "What are you?" knew nothing of Korea or Koreans. "Are you Chinese or Japanese?" they would ask confidently, as if there were no

other possibilities. The "world history" courses I took started with Greece and Rome; China and Japan were barely mentioned—and Korea never was.

Like many Korean exiles whose political consciousness ripened under Japanese colonialism, my father was a fierce nationalist fond of talking about Koreans as a people of great courage and talent. When we were small, he regaled us with tales of heroes like Sohn Kee-chung, the Korean marathon runner who proved the bankruptcy of Hitler's notion of the Aryan "master race" when he won a gold medal in the 1936 Olympics in Nazi Germany. My father also claimed that Koreans were responsible for astounding and important inventions, such as gunpowder and movable type, as well as one of the world's oldest astronomical observatories.

**Gold medal:** Although I searched and searched, I could find no trace, in the America outside our house, of the things my father told us about. Because of Korea's suzerain relationship with China, Korean inventions such as gunpowder are commonly thought to be Chinese. Likewise, Sohn Kee-chung ran the marathon in a Japanese uniform because Korea was a colony of Japan at the time. The gold medal went to Japan. Later, I began to wonder if my father had made up these things. It was almost as if Korea had never existed, or its existence made no difference.

Why did my parents talk so much about Korea? After all, they both lived most of their lives in the United States. Why didn't they take on an "American" identity? My mother grew up on the plantations and tenant farms of Hawaii and California. Although she did not visit Korea until she was in her 60s, she considered herself a Korean. My father came to Chicago as a foreign student in 1926. He lived in the United States for 63



The so-called black-Korean problem masks a deeper racism in this country

years. My parents didn't embrace an American identity because racism did not give them that choice. My mother arrived in Hawaii as an infant in 1903, but she could not vote until she was in her 50s, when laws prohibiting persons born in Korea from becoming naturalized U.S. citizens were overturned. My father never became a U.S. citizen, at first because he was not allowed to and later because he did not want to. He kept himself going by believing that he would return to Korea in triumph someday. Instead, he died in Oakland at 88, and we buried him in Korea in accordance with his wishes.

When the Los Angeles Police Department and the state government failed to respond to the initial outbreak of violence in South-Central, I suspected that Korean-Americans were being used as human shields to protect the real source of rage. Surveying the charred ruins of Koreatown, Korean-American newcomers must feel utterly betrayed by what they had believed was a democratic system that would protect life, liberty and property. The shopkeepers who trusted the government to protect them lost everything. In a sense, they may have finally come to know what my parents knew more than half a century ago: that the American Dream is only an empty promise.

I only hope that we can turn our outrage into energy, because I still want to believe the promise is real.

*Kim is a professor of Asian American studies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제목 : 최 승훈 선생의 MA주 하원 의원 출마에 즈음하여

**존경하는 시민 협회 회원 및 교민 여러분께**

L.A.를 비롯한 몇몇 대도시에서 벌어졌던 사태와 그 사태들을 통해 노정된 언론의 문제, 작금의 사회, 경제 전반에 걸친 어려움은, 우리 한인들이 우리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다 힘을 모으고 그의지와 역량을 더욱 집결해야 한다는, 중대한 기로의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 시점에서, 한인의 미국 정치에의 참여를 위한 이 지역의 기수로서 MA주 하원 의원 출마를 선언한, 최 승훈 선생의 결단을 기뻐하며 이를 격려하여 마지 않습니다. 우리 한인에게 과연 결집된 정치력과 역량이 있는지를 이 사회가 예의 주시하며 재어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여, 더욱, 우리 한인의 역량과 힘과 의지를 저들에게 보일 중요한 선거라 하겠습니다.

이에 임하여, 저희 협회의 임원들은 우리 협회의 회원이기도 한 최 승훈 선생의 적극적인 지지를 합 의하고, 이를 모든 회원 여러분들께 알리며 또한 지원을 호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대한 모든 회원과 교민 여러분들의 합심한 동의를 믿어 의심치 아니 하며, 아래와 같이 최 승훈 선생에 대한 전적인 지지와 지원을 삼가 요청합니다.

**1. 선거 후원 기부금을 모금합니다.**

선거에서는 무엇보다 여러분의 기부금이 가장 큰 도움이며 힘이 됩니다.

Payable to "The Choi Committee"로 쓰신 수표를, 별첨된 봉투를 사용하시어 13 Kristyn Dr., Northborough, MA 01532 로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2. 선거 운동을 도와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잔일, 궂은 일을 가리지 않고 선거 운동에 뛰어주실, 의욕과 정열이 있으신 분의 노력 봉사를 기다립니다. (508) 393-3000 으로 연락주시요.

**3. 공식 출마 선언 대회에 참가 초청하오니,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주 하원 의원에 출마함을 공식 선언하는 이 대회는, 언론들 앞에서 우리 후원자들의 뜨거운 지지를 또한 나타낼 수 있는 자리입니다.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길 바랍니다.

일시 : 1992년 6월 23일 (화), 오후 6:30 - 9:30

장소 : The Morgan Motor Inn, Rt. 9, Westborough, MA (Sam's Wholesale Club 건너편)

회장 김 영 집  
이사장 김 문 소



Chairperson  
Moon So Kim

Vice Chairperson  
Ok Sung Kim

President  
Young J. Kim

Vice President  
Wonyop Kim

Vice President  
Yong Bock Chang

Secretary  
Chul Woo Hyun

Treasurer  
Yong Tae Kwon

Auditor  
Boksoo Han

Auditor  
Sub Kim

Public Relations Officers

Government  
Yoang Hoon Jung

Legal  
David Gyungsoo Park

Spokesperson  
David Daewee Park

Chairpersons of Committees

Registration & Campaign  
Eun Han Kim

Fund Raising  
Yangkil Kim

Candidate Evaluation  
Nam Soo Song

Publication  
Michael Myungki Kim

2nd Generation Support  
Yoonkee Hong

존경하는 시민 협회 회원 및 교민 여러분께,

여러분의 시민 협회가 그 발기문에 명시한 바와 같이 단결된 힘으로 미국 정부와 사회에 우리의 입장과 주장을 밝혀 동포와 자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장하며 조국의 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목적으로 1990년 8월 18일, 그의 창립 총회를 가짐으로서 발족되었고, 이의 달성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제 그 설립 목적을 명문화한 시민 협회의 헌장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 2차 정기 총회를 개최하니 여러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 아 래 -----

1. 일시 : 1992년 10월 24일 (토요일) 오후 7:30분
2. 장소 : 북부 보스톤 교회  
244 Lowell St. Andover, MA 01810
3. 문의 및 연락처 : 회 장: 김영집 (508)263-1689  
이사장: 김문소 (508)475-3534
4. 기타 : 강연회 연사 및 회순은 준비중임

1992년 10월 5일

이사장 김문소  
회 장 김영집